‘나란다수행관’ 존폐 위기, 전세비 마련 나서

비로자나국제선원 5월 17일부터 불사 진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8년 비구니 숙소로 개원
전법 · 포교 · 학업 지원 목적
코로나로 재정난, 후원 모연

비로자나국제선원이 2018년 비구니 스님들의 전법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나란다수행관이 존폐위기에 처했다. 코로나로 인한 나란다수행관 전세금 마련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5월 17일부터 나란다수행관 전세금 마련을 위한 불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로선원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29일 도심포교와 국제포교의 원력으로 자우 스님에 의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창립됐다. 청정한 성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이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 참선법회와 어린이, 청소년 영어담마스쿨 등을 일반법회를 함께 진행해왔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3년 전부터 모든 법회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한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7년 걸리는 80권 화엄경 사경과 강의를 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일요마음행복법회를 통해 금강경, 천수경 법문을 통한 생활 속 불교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초등학교건립, 탑골공원 무료급식 봉사와 영등포쪽방촌 자비나눔 등 사회 전반의 아픔을 보듬고 올바르고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선원 근처에 나란다수행관을 따로이 마련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전법원력을 지원해 왔다. 지방에서 상경하여 서울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 고시원 혹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거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을 마치고 구족계까지 수계한 비구니 스님이라면 누구나 입소 가능한 나란다수행관은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 2018년 1 · 2수행관을 전세대출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25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또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장애인(농인), 일반인 포교를 하는 스님들이 마음 놓고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들어서며 전세대출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며 수행관이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됐다.

자우 스님이 그동안 어려운 사중살림에도 불구하고 나란다수행관을 운영해 온 것은 스님도 2000년대 초반 방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봉정암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비로자나국제선원의 밑바탕을 쌓았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은 “전세금 마련의 불사모연을 통하여 인재불사와 전법의 원력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뜻있는 분들의 정성을 모으고자 한다”며 “부디 한국불교의 디딤돌이 될 수행관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길 두손 모은다”고 말했다. (02)6012-1731

후원계좌 : 농협 301-0207-6786-91(예금주 : 비로자나국제선원(나란다인재양성))

제2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명회

국제포교사회 5월 14일 법련사서 개최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5월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법련사에서 ‘제 2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명회’ 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난 4월 9일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한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 합격한 스님 다섯명을 포함한 총 29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삼귀의, 회장 인사말, 합창단 음성공양, 국제포교사회 활동 및 부서 소개, 교육일정 및 평가 안내, 사홍서원, 사진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영어 자기소개, 기수 대표 선출, 등 오리엔테이션 및 집전 습의교육이 실시됐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제 포교의 큰 원을 세운 합격자들의 발심을 찬탄하고 양성과정을 원만히 마쳐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과정은 37강의 화상강의, 사찰 수련회, 실습 및 집전,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양성과정을 마치고 10월 초 포교원의 면접고시에 합격하면 국제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노덕현 기자

청년대학생 합동수계법회 서울서 열린다

청년대학생전법단 · 대불련, 5월 29일 봉은사서 봉행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대표 무각)은 5월 29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와 봉은사 보우당에서 2022년 청년대학생불자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합동수계법회에는 청년대학생 불자 12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전계사로, 효석 스님이 인례사로 의식이 진행된다. 지도법사 무각 스님, 효석 스님(이화여대), 자우 스님(성신여대), 운성 스님(서울대), 자운스님(숙명여대) 등이 참여한다.

수계법회에는 참석한 지도법사 스님들의 수계의식 안내가 진행되며, 윤소연 60년차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의 인사말과 무각 스님의 환영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축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년대학생전법단 측은 “현재 125명이 신청하였고, 봉은사대학생회 측에서도 일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 연합수계법회가 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기간 이후의 청년 수계법회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상월청년회 2기 수료 … “한국불교 중흥” 다짐

2기 30명 수료와 함께 수계 받아
포교원장 범해 스님 수계사 나서
6개월 간 토요일마다 법회, 교육
상월청년회 이름하에 전법 다짐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 하에 조직된 상월청년회가 2기생들을 배출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5월 14일 수국사 대웅전에서 상월청년회 2기 수료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30명의 청년회원들이 수료한 이날 행사에는 수계법사인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종회의원 삼조 스님,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이 참석해 이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상월청년회 회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 등을 통해 불교를 알아갔다. 지난해 겨울 동안거에서는 수국사 선원에서 참선지도를 받고, 상월결사가 올해 진행하는 평화순례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수계식에서 최봉수 회원을 대표로 이들은 삼귀의를 하며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다짐했다.


서울 수국사는 5월 14일 상월청년회 2기 수료식을 봉행했다.

수계식에 이어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주는 수료증과 함께 조계종 신도증,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들에 대한 시상과 동국장학금도 전달됐다. 또 달마배 스노보드대회조직위원회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미래스포츠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로 최근 각종 주니어 대회서 우승행보를 걷고 있는 이채운(군포수리고 2) 학생에게 전했다.

이날 수계법문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불교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서의 고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공부”라며 “우리에게는 참된 성품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다. 불교는 참된 성품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기에 이를 염두하고, 수계 이후에도 한명의 불자로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수계식에 이어 수료식에서는 지도법사를 맡았던 스님들의 아쉬움 섞인 회향사가 이어졌다. 동국대 청년스님 모임인 칠불회 소속 젊은 스님들은 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칠불회장이자 상월청년회 지도법사 세광 스님은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다. 만나면 헤어지지만 또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 마련”이라며 “각자 마음에 심어진 불법 씨앗을 생활에서 싹틔우고 예쁜 꽃 한송이를 피워내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상월청년회 부회장 김서윤 씨는 “처음에는 참석자가 많을까란 우려도 있었지만 첫 법회 후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청년회는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동거동락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연”이라며 “8월 템플스테이와 엠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청년회 회원들은 주지 호산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오늘은 회향이 아닌 상월청년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다. 전법단이 되어 내년에는 한명씩 더 불교와 인연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며 “청년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사 스님들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계사 중건 500년 기념 축제 연다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실 설정 스님 법문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가 개산 1070여년 및 이주중건 500년을 기념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화계사, 천년의 뜰을 거닐다’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계사 조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회주 성광 스님, 주지 수암 스님,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하며, 다례재와 해인사 및 통도사 학인스님들 발표회, 괘불재 및 음악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와 함께 5월 2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서는 가수 영탁, 박현빈, 바비킴, 국악인 최예림 등 인기가수 출연진들이 총출동한다.



주지 수암스님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화계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997-6469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 승황성

THE WORLD BUDDISM HEADQUSTERS OF SERVEEING MONKS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設立

설립취지

세계불교가 불조의 혜명을 잃고 일불 제자의 僧伽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AD728년 신라 구법승으로 중국에 건너가 달마, 혜가, 승찬, 도신, 홍인, 처적, 무상으로 이어지는 해동 선맥을 전수, 달마조사(達摩祖師)의 전의가사(傳衣袈裟)를 이어받아 정중종(淨衆宗)을 개창 정중선계(淨衆禪系)의 선법을 촉지(蜀地)뿐만아니라 중국의 서남국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어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초기의 종조인 정중 무상공 존자의 법맥을 재조명하고, 현창(顯彰)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더불어 세계불교국가간 유대를 돈독히 하여 부처님 법을 세계에 홍포하고자 한다.

권선문

무상선사(無想禪師)의 연구와 무상선사가 최초로 확립한 정중선파(淨衆禪派)의 선법이 촉지(蜀地)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남국(西南國)인 돈황(敦煌), 티베트(吐番)와 남조(南詔)까지 전파되는 등 실질적 중국 선종을 대표하는 초기 종파로 달마 대사의 전의가사(傳衣袈裟)가 무상대사에게 이어진 법맥이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이어진 사자관계(師資關係) 등을 밝히고 정중 무상공 존자(淨衆 無相空 尊者)를 현창(顯彰)하여 법맥을 재정립 하고자 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불의(佛意)로 불교중흥(佛教中興)에 함께 할 제방의 종단(宗團)과 사찰의 동참을 바랍니다.

世界佛教僧皇城 理事長 弘山 玄佛 稽首

THE WORLD BUDDISM HEADQUATERS OF SOVEREIGN MONKS
34. Sedobuk-ro 149beon-gil, Sedo-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82-041-832-4153 FAX : +82-041-833-4154 Mobile : +82-10-6478-1569

社團法人 世界佛教僧皇城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가입신청 문의 : 010-6478-1569 TEL 041-832-4153

수희동참 단체 : 선농교단 우리불교조계종,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화쟁교단 분황종 외